

庚戌歌



[해제]

<경술가>는 순조의 탄생을 경축하는 노래이므로 <경술가>의 제작연대는 1790년 경술년이나 그 이후 일 것이다. 유도관이 지은 <경술가>의 제목에 ‘차오임량(次吳壬亮)’이란 문구가 붙은 사실로 추측하면 오임량이 경술가를 먼저 지었다. 유도관이 이를 보고 또 두 번째로 <경술가>를 지었을 것이니 그 창작 연대는 1790년 경술년 이후에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곧 지금과 달리 편리한 마스크의 수단이 없던 때이고, 순조가 6월 태생이며 오임량의 <경술가>를 ‘차(次)’하였으니 다음해인 1791년에 작품이 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탄생한 원자의 탄생을 축하할 수는 없으니 <경술가>의 창작을 1791년 이후로 볼 수는 없다. <경술가>는 77행 155구로 되어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6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사는"天地지삼기실제運氣임의열어시니聖인이"으로 시작하는 가사이다

[원문]

庚戌歌

庚戌歌

天地 삼기실제 運氣임의 열어시니
 聖인이 나실저기 運氣엇지 허식리오
 天開 於子호시고 地闢 於丑호시고
 사름이 그직자로 寅會에 삼겨시니
 子丑寅 三奇會는 萬古에 第一이요
 그후 죠흔運氣 어느히 어느시오
 堯님금 甲申年과 舜님금 甲子年과
 禹湯의 甲辰戊辰 文王武王 壬寅癸丑
 이런聖人 내시랴매 이런泰運 여러서라
 그후 엇던히에 엇던聖人 내시건고
 叔梁紇 至極호德 顔氏女로 흥기호야
 尼丘山 湄棼峰에 聖人 비르시니
 天地 感動호고 日月이 昭格호샤
 萬古 大聖人을 보야호로 내시랴매
 六十 甲子中에 凡他年運 다버리고
 庚金이 소리호니 玉振할 징죄로다
 戌土가 寄旺호야 四行을 거느리니
 이희가 중에조타 吾夫子를 내여시니
 生而知 큰道德이 天地로 골와셔라
 祖舜 宗堯호야 道統을 이으시고
 秋陽曝 江漢濯에 浩浩乎 不可尙을
 夕陽 乾坤에 吾道로 불켜시니
 이아니 大聖인가 萬古의 第一이다
 그후 寂寞호야 몇千年 지내건고

五季 風雨夜의 晦盲否塞 오래더니
 循環은 하늘運數 無往不復 올흔말이
 建炎中 庚戌年에 朱夫子를 쏘내시니
 海濶天高 큰道德과 泰山喬岳 노픈氣像
 繼往 開來하야 吾道를 붓잡아서
 漫漫은 밤중세상 촉불잡어 붉키시니
 世遠 人亡은되 再作聖道 다항이오
 쏘다시 庚戌年이 더욱아니 신이흔가
 我東方 禮義國을 하늘도 알으실식
 聖賢君 作興흥이 太祖부터 몇몇代오
 聖子神孫 繼繼하야 殿下까지 미쳐시니
 이압 萬萬世를 손곰아 그악홀식
 고이홀선 우리聖上 嗣續이 더덕계샤
 璿甲은 漸漸눕고 春宮이 오래뷔니
 柒室에 김픈근심 天心만 바라더니
 秋七月 갠날비세 조흔윤음 받든말이
 얼시고 우리聖上 元子가 나시도다
 鳳曆을 펴셔노코 今年이 무슨히뇨
 얼시고 신이하다 세번채 庚戌이다
 이전의 두번庚戌 證驗이 붉아시니
 우리元子 이庚戌이 더욱아니 미더운가
 黃河水 물다더니 鳳凰鳥 이르도다
 三十九年 이른말이 童謠도 마즐시고
 그스이 하고한희 聖運이 아니런가
 漢太祖 光武皇帝 甲寅年 丙辰年과
 唐太宗 宋太祖의 丁巳年 丁亥年이
 조키야 조커니와 이전증험 아니로다
 冥冥은 하늘뜻이 짐짓올흘 기다려서
 孔朱夫子 고티德을 花甲에 내시도다
 二龍五老 옛祥瑞가 廟庭彩虹 세쳐섯고
 慶雲景星 남은기운 大國瑞氣 셋쳐셔라
 龍鳳姿 天日表가 海口河目 고티신가
 八彩眉 重瞳目이 荷珠教雨 싹여는가
 孔氏朱氏 두聖人이 친히안어 보내도다
 그러나 孔朱夫子 그러흔 道德으로
 君師位 못어더셔 以行政教 못히시고
 棲遑은 木鐸이요 遇遯은신 身世시다
 天心이 嗟惜은샤 王者의게 부러내여

이전에 못行호도 東國에 行케호고
이전에 못편教化 八路에 퍼게홍이
이아니 적실호가 天意를 알니로다
玉體 언제즈라 聖學이 성취호야
孔夫子 孝經論語 朱夫子 封事大全
날마다 읽고외와 心法을 體得호야
堯舜 되어안자 憲章文物 호시사
東土 八路를 春臺壽域 몬드시고
平天下 큰德그지 다시아니 볼게이고
집집마다 어린童子 小學大學 읽노소리
來頭에 協贊호야 吁咈陶喩 괴약호고
거리거리 늘근익성 흥덩이를 어러몬쳐
저근듯 康衢月에 擊壤歌 부르리라
우리도 昌平서 사오매 魯昌平
옛教化를 다시 입어볼가 호노라

[현대역]

庚戌歌

경술가

천지가 생길 때에 운기 이미 열어시니
성인이 나실 때에 운기 어찌 허사리오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는데
사람은 다음으로 인시에 태어나니
자·축·인 세 때는 만고에 제일이라
그 후 좋은 운기 어느 해 어느 해인가
요임금 갑신년과 순임금 갑자년과
우탕1의 갑진 무진 문왕2 무왕3 임인 계축
이런 성인 내시려고 이런 기 렸었어라
그 후에는 어떤 해에 어떤 성인 내신 건가
숙량홀4 지극한 덕 안징재5와 함께 하여
이구산의 높은 봉에 성인 탄생 비시니
천지가 감동하고 일월이 바르게 해
만고의 대성인을 바야흐로 내시므로
육십 갑자 중에 다른 해운 다 버리고
경금(庚金)6이 소리내니 옥진(玉振)할 징조로다
무토(戊土)7가 왕성하여 사행(四行)을 거느리니
이 해가 그 중 좋다 우리 부자 내셨으니
생이지8지 큰 도덕이 천지로 갈아서라
요순을 조종9삼아 도통을 이으시고
별 쪼이고 물에 빠니 희고 희어 최상이라
석양 천지에 우리 도로 밝혔으니
이 아니 대성인가 만고에 제일이라
그 후 적막해야 천 년 지냈는가
말세의 비바람에 운 막힌 지 오래더니
돌고 도는 하늘 운수 무왕불복 옳은 것이
건염(建炎)의 경술년10에 주자11를 또 내시니
바다 같은 큰 도덕과 태산 같은 높은 기상
과거 잇고 미래 여는 우리 도를 붙잡아서
길고 긴 어둔 세상 촛불 잡아 밝히시니
세원하여 망했는데12 다시 성도 다행이오
또 다시 경술년이 더욱 아니 신기한가
우리 동방 예의국을 하늘도 아시므로
성자 현군 일어남이 태조부터 몇 대인가

성자 신손13 계속되어 전하14까지 미치시니
 이 앞으로 만만세를 손꼽아 기약할세
 괴이할 산 우리 성상 후손이 더디계서
 성상 춘추 점점 높고 세자궁이 오래 비니
 내전의 깊은 근심 천심만 바라더니
 가을 칠월 갠날 빛에 좋은 말씀 받으시니
 열씨구 우리 성상 원자를 나시도다15
 달력을 펼쳐 놓고 금년이 무슨 해인가
 열씨구 신기하다 세 번째 경술이다
 이전에 두 번 경술 증험이 밝았으니
 우리 원자 이 경술이 더욱 아니 미더운가
 황하수 맑다더니 봉황새가 이르도다
 삼십구년 하신 말씀 동요도 맞는구나
 그 동안 많은 해에 성인 운수 아니던가
 한 태조 광무 황제16 갑인년 병진년과
 당 태종 송 태조17의 정사년 정해년이
 좋기는 좋거니와 이전 증험 아니로다
 어두운 하늘 뜻이 짐짓 금년 기다려서
 공자 주자 같은 덕을 회갑18되어 내시도다
 공자 날 때 옛 상서19가 오색 무지개20 관통했고
 서운 서성 남은 기운 대국 서기 뻗쳤도다
 용봉 자태 천일표가 성현 모습 아니신가
 팔채미 두 눈동자 연잎 이슬 띄웠는가21
 공자 주자 두 성인이 친히 안어 보냈도다
 그러나 공자 주자 그러한 도덕으로
 임금 자리 못 얻어서 정치를 못하시고
 살 곳 없던 지도자요22 떠도는 신세셨다
 천심이 한탄하여 왕자를 불러내어
 이전에 못 행한 도 동국에서 행케하고
 이전에 못 편 교화 팔도에 퍼게 함이
 이 아니 적실한가 하늘 뜻을 알리로다
 옥체는 언제 자라 성인 학문 성취하여
 공부자의 효경 논어 주부자의 봉사 대전23
 날마다 읽고 외어 마음씨를 터득하여
 요순 같은 임금되어 규범 제도 베푸시어
 이 나라 팔도마다 춘대 수역24 만드시고
 천하 평정 큰 덕까지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집집마다 어린이들 소학 대학 읽는 소리

이제부터 협찬하여 훈도 개유 기약하고
거리거리 늙은 백성 흠덩이를 미리 만져
잠깐 동안 태평한 때 격양가25를 부르리라
우리도 창평에서 살아가니 노 나라 창평
옛 교화를 다시 입어볼까 하노라

[각주]

- 1) 우탕(禹湯) : 중국 하(夏)왕조의 시조라고 전해지는 우(禹)와 은(殷)나라를 창건한 탕(湯).
- 2) 문왕(文王) : 중국 주(周)나라를 창건한 문왕(文王). 이름은 창(昌), 작위 서백(西伯). 은나라 말기에 태공망 등 인재들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고 주나라의 초석을 다짐.
- 3) 무왕(武王) :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 이름은 발(發). 목야(牧野)의 전투에서 은나라의 주(紂)왕을 물리치고 문왕의 대를 이어 주나라를 크게 일으킴.
- 4) 숙량홀(叔梁紇) : 공자의 아버지, 노(魯)나라 추읍(鄒邑)의 대부. 안씨(顏氏)의 딸인 징재(徵在)를 아내로 맞아 니구산(尼丘山)에 기도를 올리어 공자를 얻고 공자가 세 살 때 죽음.
- 5) 안씨녀(顏氏女) : 공자의 어머니, 안씨(顏氏)의 딸 징재(徵在).
- 6) 경금(庚金) :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째, 오행(五行)으로는 금(金)에 해당.
- 7) 술토(戌土) : 술(戌)은 십이지(十二支) 중 열한 번째, 오행으로 토(土)에 해당.
- 8) 생이지(生而知) : 나면서부터 앎. 성인의 경지.
- 9) 조종(舜宗) : 근본.
- 10) 건염(建炎) 경술년(庚戌年) : 건염(建炎)은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연호(1127~1130). 경술년은 건염 4년 1130년을 말함.
- 11) 주부자(朱夫子) : 주자(朱子). 중국 남송(南宋) 때의 유학자 주희(1130~1200). 불교와 도교의 철학에 맞서 실추된 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힘써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중국 한국 일본의 사회와 성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줌.
- 12) 세원인망(世遠人亡) : 세상은 멀고 사람의 도리는 무너짐.
- 13) 성자신손(聖子神孫) : 성군의 자손.
- 14) 전하(殿下) : 조선 제 22대 군주 정조(正祖)를 이룸.
- 15) 성상 원자를 낳으시도다 :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6월 19일조. 신시(申時)에 창경궁 집복헌(昌慶宮集福軒)에서 원자(元子)가 태어났으니, 유빈 박씨(綏嬪朴氏)가 낳았다. 이날 새벽에 금림(禁林)에는 붉은 광채가 있어 땅에 내리비쳤고 해가 한낮이 되자 무지개가 태묘(太廟)의 우물 속에서 일어나 오색광채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구경하면서 이는 특이한 상서라 하였고 모두들 뛰면서 기뻐하였다.
- 16) 한태조(漢太祖) 광무황제(光武皇帝) :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태어난 해 갑인년은 기원전 247년,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유수가 탄생한 해 병진년은 기원전 5년.
- 17) 당태종(唐太宗) 송태조(宋太祖) : 당(唐) 태종(太宗) 이세민과 송(宋) 태조(太宗) 조광윤이 태어난 해.
- 18) 화갑(花甲) : 육십 갑자를 일컫는 말. 즉 경술이라는 갑자를 말함.
- 19) 이룡오로(二龍五老) : 성인이 나실 때의 상서로움.
- 20) 묘정(廟庭) : 종묘의 우물.
- 21) 연잎 위 구슬 머금었나 : 또렷하고 시원스런 이목구비 등 원자의 생김새를 찬미하는 구절임.
- 22) 거처 없는 목탁이요 : 『논어』 팔일편(八佾篇) 24장, “하늘의 도가 없어진지 오래라,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木鐸)으로 삼을 것이라”(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목탁(木鐸)은 쇠로 입을 만들고 나무로 혀를 만든 것이니, 정교(政教)를 베풀 때에 흔들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 23) 봉사대전(封事大全) : 『주자대전(朱子大典)』의 편차 가운데 봉사(封事)편을 가리켜 『주자대

전』을 비유적으로 이룸.

24) 춘대수역(春臺壽域) : 아름답고 태평하여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고장.

25) 격양가(擊壤歌) : 중국 요임금 때 늙은 농부가 땅을 치면서 천하(天下)가 태평(太平)한 것을 노래한 데서 온 말로 태평(太平)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